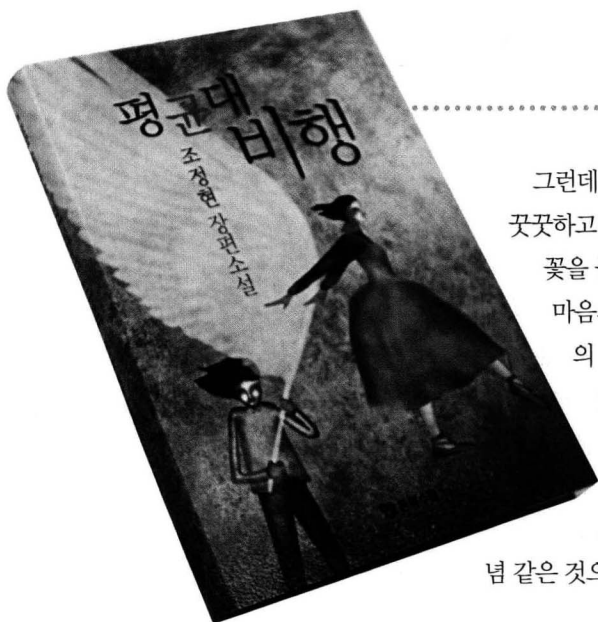


《평균대 비행》

옥상과 허공, 비행(非行)과 비행(飛行)의 경계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토요일무일이나 일요일 새벽에 산에 오른다. 대개 집과 가까운 '문수산'을 찾는데 그 산에는 계절마다 많은 꽃들이 핀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노루귀는 2월 중순부터 하나씩 얼굴을 내민다. 처음 그 꽃을 만나면 너무도 경이로워 쪼그리고 앉은 채 하염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어서 피는 현호색이나 제비꽃도 연약하면서도 강단져 보여 대견하고 흐뭇하게 쳐다보게 된다. 그에 비해 나는 장미나 백합 같은 꽃에 대해서는 그다지 호감을 갖지 않는 편이다. 화원의 꽃은 생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사람의 손에 의존한다. 그런 점에서 그건 생명이 있되 만들어진 것, 결국 조화와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글_강미



그런데 요사이 마음이 꽤 불편하다. 내가 야생화를 좋아하는 것은 추위와 무관심을 이겨낸 꽃, 곳곳하고 강한 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이다. 그렇다면 나는 꽃 그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보다 꽃을 둘러싼 조건들을 더 먼저 보았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는 내 마음의 편견은 꽃에서뿐만 아니다. 최근 눈물과 함께 읽은 소설, 《환절기》(박정애, 우리교육)의 수정, 《열여섯의 섬》(한창훈, 사계절)의 서이에 대한 나의 과도한 애정은 그녀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외로움 때문이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 또 있다. 모 정당이나 모 단체는 권력에 빌붙어 언제나 반민중적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대개 이기적이며 매몰차고, 걸치장이 화려한 사람은 어쩐지 머리가 비었을 거라는... 늘 한쪽에 마음을 매어놓고 다른 편은 빼뜩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걸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관, 혹은 당연한 신념 같은 것으로 여기면서 말이다.

《평균대 비행》

조정현 지음 | 문학수첩 | 334쪽 | 값 9,000원

선입견 버리자 내용이 보여

제4회 '문학수첩작가상'을 수상한 《평균대 비행》 읽기는 이러한 나의 편견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이 소설은 강남의 로열타워와 고급 술집, 8학군을 배경으로 한다. 등장하는 어른들은 몸치장과 집 꾸미기(어머니)에 빠져 있거나, 한자리 술값이 몇 백만 원씩 하는 술집을 경영하거나(아버지, 김부장) 수뢰나 탈세를 저지르기도(강현창의 아버지) 한다. 자식들은 고액 과외를 하거나 받고, 고급 호텔을 드나든다. 내가 처음에 느꼈던 거부감은 바로 이런 정황들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다. 한마디로 내 성향의 책이 아니었다.

그런데 읽다보니 그게 아니었다. 우선 반듯하면서도 도시적인 문체가 독특했고, 줄거리 속으로 몰입하게 하는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앞에서 말한 나의 편향된 시각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나는 서너 시간 잘 놀았다고만 생각하고 책을 던져 버렸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책꽂이 앞을 지나칠 때마다 소설 속의 인물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빼뜩하게, 혹은 나른하게 선 성호신, 권채이, 강현창 등이 한 마디씩 불쑥불쑥 내뱉으며 내 마음의 편견을 지적했다. 유쾌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면서 나는 다시 책을 폈다. 그때서야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미덕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우선 작가의 형상화 솜씨가 고도로 세련되고 상징적이다. 많은 지면이 할애되고 있는 로열타워는 물신성의 상징으로 현대 도시인이 너나없이 꿈꾸는 곳이다. 그래서 아름, 채이, 마로, 강현창은 성효신의 집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작가의 시선은 한걸음 더 나아가 로열타워 난간 밖의 허공에 주목한다. 그 허공은 현대사회의 물신성과 속물성을 극복할 수 있는 비행(飛行)의 공간이다. 하지만 인간은 원초적으로 날개가 없다. 설사 날개가 있다 할지라도 이카루스처럼 끝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균형을 잡고 양쪽의 경계에 설 수밖에 없다. 경계인 난간을 걸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밑을 바라보지 않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하며, 바람과 사귄 수 있어야 하며, 양팔을 수평으로 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단숨에 되는 일도 아니다. 그래서 평균대가 필요한 법, 효신과 마로는 옥상에 놓은 평균대에 오르는 연습을 하며 두려움 없이 난간에 오를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평균대 위를 걷는 연습은 청소년에서 성년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의 상징인 셈이다. 이 소설이 빛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이 소설은 학교사회와 입시제도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후배들로부터 강현창이 숭배받는 이유는 오로지 공부를 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패턴화 되어 있는 문제풀이만 잘하면 되는 그 공부는 인격 수양과도 관련이 없으며 강현창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지도 않는다. 건강한 사회인을 키워내야 할 학교는 돈만 쓰면 복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공부만 잘 하면 학교 규칙을 어겨도 눈감아 준다. 또한 학생들을 무뇌아로 취급하여 프린트물을 내어주며 외우라고만 한다. 채이의 말을 빌리면 학교는 '거룩한 공부'를 포기하고 '비겁한 공부'만 시키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 가지 위안은 학교 옥상에도 난간이 있고 날 수 있는 허공이 있다는 점이다. 소설의 끝에서 효신은 학교 옥상의 난간에 오른다. 그는 난간 위를 걸으며 "안전과 위험의 경계에 서서 두 편 어느 쪽으로도 떨어져도 자신 있다는 마음을 누르고 싶었던" 강현창을 떠올린다. 효신 역시 같은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싶기 때문이다. 강현창은 끝내 추락하고 말았지만 효신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효신은 많은 연습을 통해 이미 경계에서의 균형 잡는 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통은 하되 예측되지는 않은 여러 관계들 속에서 효신은 자신만의 언어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진중한 성장 소설이 주는 즐거움

나는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나도 유년기를 농촌에서 보냈더라면 더 풍성한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 또한 나의 편견일 수 있겠다. 고향을 얘기할 때마다 나는 '도시빈민 출신'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곤 했는데 도시빈민이라 한들 삶이 없을 리 없다. 또 삶인 이상 제 몫의 가치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류층 출신의 삶도 있을 것이고, 그들 역시 세계에 내던져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없을 리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는 다양할지 몰라도, 부딪치고 깨지면서 성장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은 테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평균대 비행》은 현대 성장 소설의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편견을 확인하고 반성하게 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제 나도 장미나 백합의 조건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럴 때가 된 것 같다. **김미**

김미님은 청소년 문학가이며 울산중앙고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1991년 우리교육 소설 공모에서 〈민세의 골리앗〉이 당선했고, 2005년 제3회 푸른문학상에서 〈길 위의 책〉으로 '미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